

노인대표 초청 만찬

어르신 여러분 정말 반갑다. 제가 진작 여러분을 모셨어야 하는데 기회를 내지 못하고 늦었습니다. 모신 것을 기쁘게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앉아서 얘기하라고 마이크를 낮게 놓습니다. 어르신들 모셔서 서서 말씀 드립니다.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내가 자꾸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내가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표인데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고 뻗뻗하게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편 다른 분들은 대통령이 절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과 아내 사이에 끼어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합니다.

오늘 노인대회에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하다 싶은지 절하고 따라오셨습니다. 단상에서 깊은 절을 했는데 그것도 따라해 줬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절하는 게 흉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싱거운 얘기로 생각되지만 이 말속에 제가 어르신들에 대한 자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잘 받아주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하신 얘기 다 하시고, 약속을 받아야 할 게 있으면 세계 다그쳐주십시오. 의사 결정이 즉흥적으로 되면 적절치 않지만 이런 자리에서 나온 말씀은 가능하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